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연비제 도입을

참여차지21 “연료비 지급 직불제 전환... 연 70억 절약”

광주의 한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수백억원씩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절감안으로 연료비 지급 방식 개선 등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차지21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의 연료비 산정기준을 현실 연료비 지급방식에서 표준연비 방식으로 바꾸고, 연료비 지급도 버스회사가 아닌 해당도시가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연간 70억원 안팎의 시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차지 21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내버스 표준연비로 1.79

km/ℓ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의 2.37km/ℓ에 비하면 무려 25%나 낮은 수치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체 개발한 표준연비제도를 버스 준공영제에 도입·운용중이며,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연비를 적용하고 있다. 표준연비제도는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하는 실연료비 지급방식이 아닌 표준연비를 적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연료비 및 지원 예산 절감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연료비 지급방식의 경우 연비산정을 회계법인에서 하는 탓에 연료비 지급 근거 자료는 시내버스회사에서

제공한 회계장부가 유일하고, 버스연료 절감 노력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는 게 참여차지21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연료비 지급 방식마저 연비 1.79km/ℓ를 적용해 시내버스회사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장부에 근거해 정산하는 실사용 정산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차지21은 “광주시가 대전과 같은 연비를 적용할 경우 매년 7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표준연비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가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도 해당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하철 무임승객 전체 매출액 절반

올 6월까지 294만명 35억 달해 손실분 국가보전 시급

광주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한 노인 등 무임 승객의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가 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자 친환경 교통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임승승비에 대한 국가보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지난 1~6월 기준 무임 승승인원은 294만4000명으로 금액으로만 35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전체 매출액 72억원 중 49%가 무임 승승비인 셈이다. 지난해는 143

억원 매출에 무임승승액은 70억원, 2012년은 140억원에 70억원으로 각 49%와 50%였다.

무임승승인원은 2010년 547만1000명에서 지난해는 583만8000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이용객이 1800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32.4%로 3명 중 1명은 공짜 승객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시철도 공사의 당기 순손실도 2010년 309억원에서 2011년 311억원, 2012년 341억원, 지난해 365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손실

분, 무임 승승액도 증가하면서 손실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기준으로 1인당 승승권가는 4688원인데 반해 평균 수입은 603원에 그치면서도 요금 적정화율도 12.9%에 불과한 상황이다.

광주도시철도 관계자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들이 수년째 무임 대상 연령 상황, 소득에 따른 요금 차등화, 무임 손실분 국가 보전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일 열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준공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원 등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랑스런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본받자”

학생독립운동회관 준공식

제85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에 새로 동지를 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광주학생회관)에서 열렸다.

광주학생회관 준공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학생독립

운동동지회·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민족애와 독립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새로 문을 연 광주학생회관은 연면적 1만3783㎡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장소 17만여권을 보유하고 종합자료실·어린이실·디지털실 등 다양한 정보자료 공간과 300석 규모의 강당을 갖춘 호남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학문 연구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난 46년간 옛 도심인 동구 황금동에서 도서관 기능을 하다가 지난 8월 이곳으로 이전했다. 옛 학생회관은 광주시에서 새 단장해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유익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장은 “광주시민과 학생이 자랑스러운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본받고 불의와 압제에 맞섰던 지역의 전통을 살려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wpark@kwangju.co.kr

국회,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의원 43명 공개

주승용의원 포함... 3개월내 물러나야

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우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당 김장실 의원도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서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서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국의원 이사장과 대한기합협회 이사장 등 총 4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대한

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등 4개 직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을 대해 각각 사직권고를 받았다.

이병서 국회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고, 체육인 출신인 이예리사 의원은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 직에 대해 사직을 권고받았다. 대한복싱연맹 회장인 장운석 의원과 대한카누연맹 회장인 장준호 의원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국민생활체육전국공도연맹회 회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당 새

정치연합 정병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퇴임해야 하고, 최재성 의원은 전국유소년소년체육연맹 회장자리를 내놔야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씨배에 이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9~16일 중 APEC·호주 G20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16일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과 미얀마 네피도, 호주 브리즈번을 잇따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제22차 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9~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이어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9차 EAS 참석차 12~13일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다. 또 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14~16일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아·대 동반자관계를 통한 미래구축’을 주제로 11월11일 첫 정상회의의 세션이 열리

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하루 앞선 10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의 대화’를 시작으로 정상회의의 일정을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또 13일 오전 EAS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에볼라,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안보 현안 위기 해결을 위해 지역적 대응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중일 3개국 회의의 조정국 정상으로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현 아세안 의장국인 미얀마와 공동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귀국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우리 나라를 국빈 방문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오주 원장 사직서 제출

오주 광주교통문화연구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3일 “이날 오주 원장이 일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일께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일 강운태 시장 때 임명된 오 원장은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라,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② 이드를 레이저: 스쿠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체오 레이저: 현물맥스, 다리오우즈체오

④ 피부 미백: 쉐메니스틴, 엑셀V, 쉐메니스틴, 쉐메니스틴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울트라펄스, 울트라펄스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인: 네오모드,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

[주소지]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 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문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